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6	09. 13	09. 20
대표 기도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성경 봉독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잠25~31장, 룎1~16장, 고전1~4장)
2. 청년회 소식 - 박예슬(Darmstadt 공대 입학), 이 현(Coventry 대학 교환학생)
3. 8월 생일 - 황희순집사(1일) 이수현집사(4일) 김수정성도(12일) 정용현집사(31일)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5.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6.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용현 안수집사(3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36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행 16 : 35 - 40(신p215)..... 황희순 집사  
(Apostelgeschichte 16:35-40)
- 설 교 Predigt ..... 자존감과 자존심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368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땀지 않는 안경

어떤 부부가 자동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치자 남편은 우리가 아직 더러우니 한 번 더 닦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다시 앞 유리를 닦으면서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별레나 더러운 것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직원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남편은 화를 내면서 아직도 더럽군. 아니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라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또 다시 빠뜨린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유리를 닦았지만 어디에도 지저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유리창이 여전히 더럽네요. 내가 사장에게 말해서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말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보아 온 유리 닦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제일 엉터리야 말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남편의 안경을 닦아주자 남편은 그제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얼굴을 붉히면서 주유소 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계속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으려 합니다.

내 영혼의 119 / Kent Crockett 목사  
(미국 Kansas City 모퉁이 돌 교회 담임)

\* 사람은 행위를 달아보고 하나님은 의도를 달아보신다 - R. H. Hewler -